

생명문화 창조해야 할 여성운동



오늘날 세계도처에서 평화운동이 불길처럼 일어나고 있다. 그 운동은 현실적으로 전쟁반대, 핵반대, 또는 군축문제를 내용으로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우리나라와 같이 특수사정에 놓여 있는 상황에서는 단번에 납득이 오지 않을 수 있다. 이 오늘날의 평화과피의 요인은 비단 전쟁만이 아니다. 인구폭증, 잘못된 발전 문제, 빈부의 격차, 권력의 편중 또는 공공과도 같은 다국적기업의 횡포는 날로 인간성을 말살하고 드디어는 인류의 생존마저 위협하고 있어 세계의 양심은 세계의 평화를 이룩하기 위해서는 정의로운 세계를 건설해야 한다고 소리치고 있다. 평화와 정의는 쌍둥이로서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다고 한다. 그래서 오늘날의 평화운동은 여성해방운동과 생명운동(Life-생명과 삶)의 일환으로 번져가고 있다. 평화의 문제는 오늘날의 기독교 아니 인간에게 부과된 그리스도의 명령으로 받아지고 있으며 신앙의 고백으로서 참여

음이 있는 운동일지도 모른다. 그것이 곧 역사창조의 고통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고통을 감수할 자세가 되어 있는가? 고통을 피하고도 평화의 입문일 수 있는가? 마치 십자가가 없는 부활을 생각하는 격일 것이다.

이러한 자성이 금번 세계대회에서도 일어났던 것으로 보고 되겠다. (Y월간 83년 12월호)오늘의 콘텍스트에서 평화와 정의를 위한 우리의 노력이란 「역사의 추세를 깨는 일이다」라고 생각한다. 이기는 것이 진리, 힘이 제일, 물질만능이 중심으로 수단을 가리지 않는 적자생존의 추세를 집으로써 이긴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을 따르는 사랑의 논리로 바꾸어 놓는 일이다. 그릇된 발전과 팽창주의로 치닫게 하여 자원을 탕진케하는 「유비무환」의 개념도 이기적인 인간화에 치중했던 종래의 여성해방의 방향도, 우리를 위축케하였던 약소민족의 열등감도 이제는 다시 생각해 보아야 할 때가 왔다고 본다.

기독교운동으로서의 Y운동은 신앙고백의 형태로써 전쟁경제체제를 평화체제로 물질만능 또는 최고, 제일주의의 역사의 추세를 깨는 일에 혼자서가 아닌 교회여성의 연합운동으로 전개하는 것을 통해 교회일치운동에 앞장서야 한다. Y는 여성운동으로서 죽김의 문화인 오늘날의 문화를 생명의 문화로 바꾸기 위해 오랜 고난을 통해 얻어진 귀중한 유산인 여성이 지닌 가치인 오늘날의 여성성

통일, 빈부격차 문제 등에 관심 갖자

하고 있어 그 힘이 강하다.

YWCA는 평화와 정의의 사회건설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제28회 전국대회에서는 「사랑과 평화의 일환으로 삼소서」를 또 하나의 60년을 여는 주제로 결의한바있다. 세계YWCA는 1955년 창립백주년을 기념하면서 평화정책(한국Y 반백년 P127-131)을 채택하였고 1959년에는 원자력 사용및 핵실험 금지에 관한 결의를 발표한다 있다. 1983년 11월에 있었던 YWCA세계대회에서 논의된 5개 프로그램 방향과 5개의 YWCA운동의본질(83년12월호 한국YWCA P8-9)을 보나 한국YWCA의 제28회 전국대회에서 채택된 세계평화를 위한 결의문을 볼때 YWCA운동이 바로 평화운동임을 알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YWCA가 평화문제에 얼마나 공헌하였는가 하는것이다.

우리나라는 외세에 의한 분단조국을놓고 동족간의 엄청난 생명과 경제의 출혈을 하고 있다. 농촌, 노동현장의 소리 학원사회의 소리, 정치현장의 소리, 젊은 세대의 고뇌와 방황의 소리와 각종 오염테러, 전정의 위협등이 뒤흔들어 낸 즉생과 죽음의 선택의 기로에 선 상황이 YWCA가 평화의 일환이 되겠다고 하는 우리들의 현상이다. 인간을 사랑하기 위해 인간회복을 위해 하나님은 고통을 당하신다는 것이 「사름」의 역사실험의 근거가 되어 있어서 평화를 향한 Y운동은 고통이 따르고 아픔이 있고 자기죽

즉 모성성을 재해석해서 발휘하므로 새로운 인류역사에 공헌해야 한다. 국제적인 운동체로서의 Y는 남북통일의 문제, 다국적기업의 문제, 재일교포의 문제 원폭피해자의 문제, 판광기생의 문제, 여러나라에 흩어져 있는 우리교포의 당면 문제등을 당연히 국제무대에서 해결하려고 노력해야 할것이다. 이러한 문제는 우리만의 잘못으로 생겨진 것이 아닐뿐더러 우리만의 노력으로 해결될 문제도 아니기 때문이다.

평화운동으로서의 Y는 교육활동을 통해서 가치관 변경, 탈종교의 교육, 여성신학등을 통한 성서의 바른 이해, 그리고 명과 실이 통일한 민주현실이 새롭게 실시되어야 하며 사회캠페인으로서 에너지 소비극소화-인력활용극대화, 절약한 것은 이웃에게, 소비의 수치심, 노동에 대한 의식개혁을 위한 생활개혁운동을 전개하는 한편 이러한 캠페인의 실효를 거두기 위해 대정부 건의활동도 적극 벌려야 한다고 본다.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평화의 파피요인은 너무 큰데 비해 우리의 힘이 미약하다고 생각해서 좌절하기 쉽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그의 뜻을 이루는 일에 약한자와 작은자를 들어 쓰신다는 것을 믿고 특히 여성들을 들어 쓰시는 일을 이스라엘의 출애굽역사 준비파장에 얹고 있기에 용기를 얻는다. (지난해 12월 20일에 있었던 평화세미나 강연을 요약한 것임)

박영숙 (프로그램부 위원)